

배우 박은빈 “7개월간 고시공부 하듯 대사 외웠어요”

ENA 종방극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신드롬급 인기 1회 0.9%로 시작 입소문 타며 16회 17.5%로 막 내려

텔레비전 박은빈(30)의 자폐 스펙트럼 연구는 현실성이 높지 않았다. 기존 매체에서 배우들이 장애 증상을 표현하는데 초점을 맞췄다면, 박은빈은 조금 더 사람스럽게 표현했다. 오히려 대중들은 자폐 스펙트럼을 가진 ‘우영우’(박은빈)에게 편견을 가지지 않고,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었다. 케이블채널 ENA 종방극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가 신드롬급 인기를 끄는데도 한 몫했다.

“현실성과 비현실성 문제는 캐릭터를 구축하는데 같이 갖고 가야 할 문제였다. 장애라는 증상을 구현하는데 초점을 맞춘다면, ‘방어적으로 연기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다. 인물이 가진 잠재력, 가능성 등을 간과하게 될 것 같았다. 이 캐릭터 만큼은 우영우 세계관 안에서 마음껏, 자유롭게 표현하고 싶었다. 초반에 ‘우영우는 이런 사람입니다’라고 보여주기 앞서 ‘이상하다’는 인상을 주면서 이상하지 않게 일을 잘 하는 모습 보여줘야 했다. 이를 ‘어떻게 조율할까?’가 굉장히 어려운 과제였고 심사숙고해 표현했다.”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는 0.9%의 기록을 보였다. 1회 0.9%(닐슨코리아 전국 유료가구 기준)로 시작, 입소문을 타면서 16회 17.5%로 막을 내렸다.

세계 넷플릭스 TV쇼 부문 3위까지 올랐다.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우영우 대사를 따라하는 등 각종 패러디물이 쏟아졌다. 이를 보고 불쾌해 하는 시청자도 많았다. “일단 따라하는 분들도 비하하려고 한 건 아니라고 믿고 싶다”며 “영우를 연기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신중하게 고민하고 결코 가볍지 않게 다가갔다. 영우는 세계관 내에서만 존재했으면 좋겠다. 좀 더 간결하게 말하자면, 영우를 사랑해줘서 감사하지만 외형, 말투 등을 흉내 내는 것은 타인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기에 지양해줬으면 한다”고 밝혔다.

처음에 박은빈은 이 드라마를 수차례 거절했다. 스스로 확신이 없어서 ‘과연 내가 잘 해낼 수 있을까?’ 싶었기 때문이다. 유인석 PD

와 문지원 작가가 믿어줬기에 “보답하고 싶고, 도전해보고 싶은 모험 섞인 마음도 있었다”고 털어놨다. 전작인 ‘연모’(2021) 종방 후 우영우를 준비하는 시간은 딱 2주밖에 주어지지 않았다. 워낙 대사가 긴 만큼 “7개월간 매일 시험 보는 기분으로 살았다”며 “법정용어가 어려운 게 많아서 ‘고시공부 한다’고 생각했다”고 돌아봤다. “끝까지 잘 해내고 싶어서 악전고투했다”며 “혼신의 힘을 다해서 다시 안 돌아가고 싶을 정도”라고 했다.

“사실 대사를 못 외우는 편은 아니다. 대사를 그냥 외워서 시간을 가지고 차분하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속사포로 내뿜고 발음도 정확하게 해야 했다. 내가 영우처럼 천재적인 두뇌를 갖지 않아서 대사량에 익숙해지는 게 첫 번째였고 내성을 들이는데 시간을 들였다. 법정용어는 그냥 들으면 이해하기 어려워서 A4 용지에 쓰면서 통으로 외웠다. 미리 외울 수 없어서 조금 힘이 부쳤었다. (대사가) 내일도 많고 모레도 많고 항상 많았다. 신경 쓰인다고 일주일 전에 외울 수 있는 게 아니라 당장, 또 내일이 급해서 그 때 그 때 많은 양을 외우는 게 어려웠다. 쉬는 날에도 마음의 짐이 가득했다.”

영우가 좋아하는 고래는 동심을 불러일으켰다. 극 중간 중간 고래를 컴퓨터그래픽(CG)로 삽입해 흥미를 더했다. 초고에는 고래가 없었지만, 유 PD와 문 작가가 영우의 판타지를 시각화할 수 있는 요소를 고민하다가 택한 소재다. 고래 대사를 외울 때 고생을 많이 봤지만, 시청자로 볼 때는 좋았다며 “이 지구상에 이런 생명체가 살아 숨 쉴 수 있다니...”라고 놀라게 해준 매개체다.

박은빈은 16회에서 “흰고래 무리에 속한 외뿔고래와 같다”고 표현한 장면을 가장 좋아한다고 꼽았다. “영우가 이 드라마에서 하고 싶은 말이였다”며 “극본을 받은 순간 ‘이 얘기를 하기 위해 영우가 16부 동안 성장해야 했구나’ 싶었다. 영우가 흰고래 무리에 속한 외뿔고래라는 걸 인정하는 게 감동적이었

다”고 설명했다.

극중 영우는 ‘우당탕탕 우영우’라는 별명을 좋아하지 않았지만, 박은빈은 마음에 들어했다. “그저 현상을 유지하는 게 아니라, 뭔가 소란을 일으켜서라도 ‘현 상황’을 정복시키겠다’는 의미가 있지 않나?”면서 “우당탕탕 사는 게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극중 다양한 인간 군상이 나오는데, 어찌보면 영우보다 이상한 사람도 등장한다. 영우만이 이상한 게 아니고, 이상한 게 이상한 게 아닌... 과연 사람들이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게 무엇이고, 반대 개념인 비정상은 어디에서 오는 것인지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됐다”고 강조했다.

물론 기존 드라마에서 빠지지 않는 클리셰 요소가 곳곳에 등장해 진부한 면도 있었다. 영우의 출생의 비밀, 범법법인 ‘한바다’ 송무팀 직원 ‘이준호’(강태오)와 로맨스 선배 변호사 ‘정명석’(강기영)의 위암 3기 판정 등이 대표적이다. 그래도 영우와 준호의 사랑은 뻔하지만 순수하게 표현해 많은 여성들을 설레게 했다. “자폐스펙트럼을 가진 영우와 사랑도 가능할까?”라는 의문도 있었지만, “이 세상에 불가능은 없다”는 걸 미디어를 통해 보여줘야 희망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싶었다”고 짚었다. “꼭 러브라인이 개인 성장에 필요한지는 모르겠지만, 영우는 자신만이 가득한 세상에 살아가기에 너라는 존재를 알게 되고 내적으로 성장이 있을 수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이미 제작사 에이스토리는 우영우 시즌제 제작을 확정된 상태다. 박은빈은 정식으로 제안 받은 적 없기에 난감한 듯한 눈치였다. “어려운 문제이긴 하다”면서 “이미 사랑을 받은 만큼 기대치와 바라는 게 더 많아질 텐데 ‘과연 그 이상을 뛰어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까?’ 싶다”는 생각이다. “현재로서는 어느 것도 확인할 수 있는 게 없다”며 “마지막 엔딩에서 영우의 모습이 사진 찍히듯이 남아 그대로 ‘보물상자에 넣어주면 어떨까?’ 싶다. 촬영할 때 정말 뿌듯하게 영우를 보내주고 싶었다. 만약 보물상자를 다시 열어보라고 한다면, 처음에 영우를 마주하기로 했을 때부터 더 큰 결심이 필요할 것 같다”고 했다.



아역 출신인 박은빈은 어느덧 데뷔 27년 차를 맞았다. 1996년 아동복 모델로 데뷔, 차근차근 필모그래피를 쌓았다. 성인이 된 후 ‘청춘시대’ 시즌1·2(2016~2017) ‘스토브리그’(2019~2020) 등으로 주목 받았는데, 우영우를 통해 스타상까지 겸비하게 됐다. 다음달 4일 데뷔 후 처음으로 팬미팅도 열 예정이다. “언제 이렇게 시간이 지났는지 모르겠다. 27년 차인지도 몰랐는데, 이렇게 서른 살이 넘고 대중적인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작품을 만난 건 큰 복이다. 해외 진출 계획도 있나고? 한국을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할리우드에 진출하고 싶거나 거창한 꿈은 없다. 아직 휴식다운 휴식을 못 보네 차기작을 검토하지 못했다. 그래도 ‘우영우’ 다음으로 어떤 모습 보여줄까?”는 큰 고민은 아니다.”

다. 27년 차인지도 몰랐는데, 이렇게 서른 살이 넘고 대중적인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작품을 만난 건 큰 복이다. 해외 진출 계획도 있나고? 한국을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할리우드에 진출하고 싶거나 거창한 꿈은 없다. 아직 휴식다운 휴식을 못 보네 차기작을 검토하지 못했다. 그래도 ‘우영우’ 다음으로 어떤 모습 보여줄까?”는 큰 고민은 아니다.”

‘육사오’ 예매량 1위...헌트·한산 이기나

고경표·이이경 주연 코미디 영화

한국 코미디영화 ‘육사오’가 예매 관객수 1위에 오르며 ‘헌트’ ‘한산:용의 출현’ 양강 체제에 균열을 내고 있다. 브래드 피트가 주연한 액션영화 ‘볼트 트레인’은 ‘육사오’에 이어 예매량 2위를 달리고 있다.

영화진흥위원회에 따르면, ‘육사오’는 24일 오전 9시30분 현재 예매 관객수 4만2805명으로 예매량 1위다. ‘육사오’는 고경표·이이경·음문석·곽도연 등이 주연한 코미디영화다. 우연히 1등 로또를 손에 쥐게 될 뻔한 병장이 이 로또를 두고 북한군과 엮이게 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다. ‘박수건달’(2013) ‘날아라 허동구’(2007) 등을 만든 박규태 감독이 연출한 작품이다.

‘육사오’는 박스오피스 1위인 ‘헌트’(예매 관객수 3만5606명), 2위인 ‘한산:용의 출현’(1만4209명)보다 예매 관객수가 많아 박스오피스



순위에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브래드 피트가 출연하는 영화 ‘볼트 트레인’은 예매 관객수 3만7118명으로 예매량 2위를 달리고 있다. 영화는 킬러 ‘레이디 버그’가 서투기 가방을 훔쳐오라는 미션을 받고 도쿄에서 교토로 가는 신칸센을 탔다가 또 다른 킬러들과 엮이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담았다. 피트가 레이디 버그를 연기했다. 연출은 ‘존 워’(2015) 등을 만든 데이비드 레이치 감독이 했다.

윤제균·김용화 ‘1000만 감독’ 국회로...저작권법 개정안 토론

오는 31일 국회 의원회관 토론회 참석

윤제균·김한민·김용화 등 한국영화계를 대표하는 ‘1000만 감독’이 국회에서 열리는 저작권법 개정안 토론회에 참석해 K-콘텐츠 창작자의 정당한 권리 찾기에 나선다.

한국영화감독조합은 “오는 3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리는 ‘천만영화 감독들 마침내 국회로:정당한 보상을 논하다’에 참석한다”고 밝혔다. 이 토론회는 유정주 민주당 의원실과 한국영화감독이 공동으로 주최·주관한다. 윤제균·김한민·김용화·강제규·강윤성 감독이 토론자로 참여하며 배우 유지태가 사회를 맡는다. 이와 함께 박찬욱 감독 등은 토론회 측사로 힘을 보탬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는 저작권법을 개정해 영상창작자의 공정보상권을 법제화하는 걸 중점적으로

다룰 계획이다. 한국영화감독조합은 “전세계에서 저작권료를 벌어들이는 K-팝 창작자들과는 달리, K-콘텐츠 창작자들은 세계 시장에서 이용에 걸맞은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눈에 보이는 화려한 성공에 가려진 영상창작자들의 안전망 붕괴를 목과한다”며 K-콘텐츠의 화양연화도 10년을 넘기 힘들다”고 주장하고 있다.

유정주 의원은 ‘영상물 제작을 위해 저작권을 양도한 영상물의 저작자는 영상물 최종공급자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저작권법 개정안을 준비해 토론회 당일 공동발의 의원들과 함께 서명해 발의할 예정이다. 또 황동혁·민규동·이경미·홍원찬·홍의정·한가람 등 한국영화감독



조합 소속 감독들과 한국시나리오작가조합 소속 작가 약 200여명도 이날 자리에 참석해 개정안을 지지할 계획이다.

구교환·연상호 또 만났네...‘기생수’



배우 구교환과 연상호 감독이 또 만났다.

넷플릭스 ‘기생수: 더 그레이’는 어느 날 우주에서 떨어진 정체불명의 기생생물이 인간을 숙주로 삼고 살인을 저지르며 그들만의 세력을 만들기 시작하는 이야기다. 이와어키 히토시 만화 ‘기생수’가 원작이다. 약 20개국에서 2500만 부 이상 팔렸다.

영화 ‘부산행’(2016), 넷플릭스 드라마 ‘지옥’(2021)의 연상호 감독이 연출·각본을 맡는다. 류용재 작가와 함께 극본을 쓴다. 티빙 드라마 ‘괴이’(2022)에 이어 두 번째다.

구교환은 영화 ‘반도’(2020), 괴이에 이어 연 감독과 세 번째 호흡을 맞춘다. 사라진 여동생을 찾기 위해 기생수를 쫓는 ‘실강수’를 연기한다. 반도에 함께 출연한 이정현도 힘을 실는다. 기생물 전담반 ‘더 그레이’ 팀장 ‘최준경’이다. 남편을 잃은 뒤 오직 기생수 박멸을 위해 살아간다. 전소니는 기생물에 감염된 ‘정수인’을 맡는다. 자신의 뇌를 빼앗는 것을 실패한 기생물과 기묘한 동거를 한다.

한지현·배인혁 주연 ‘치열업’ 리딩 현장...캠퍼스 청춘 케미



오는 10월 3일 SBS 10시 첫 방송

SBS 새 월화드라마 ‘치열업’이 대본리딩 현장을 공개했다.

오는 10월 3일 오후 10시 첫 방송하는 SBS ‘치열업’은 찬란한 역사를 뒤로하고 망해가는 대학 응원단에 모인 청춘들의 뜨겁고 서늘한 캠퍼스 라이프를 그린다.

드라마 ‘스토브리그’를 공동 연출한 한태섭 감독과 ‘VIP’를 집필한 차해원 작가가 의기투합했다.

이날 대본리딩 현장에는 한태섭 감독, 차해원 작가를 비롯해 한지현(도혜이 역), 배인혁(박정우 역), 김현진(진선호 역), 장규리(대초희 역), 이은샘(주선자 역), 양동근(배영우 역)

등 주요 출연진이 참석했다.

먼저 한지현은 연희대학교 응원단 ‘테이아’의 신입 단원이자, 축복받은 외모 유전자에 명량한 성격까지 지닌 신입생 ‘도혜이’ 역을 맡았다. 공감할 수 밖에 없는 K-청춘의 애환을 현실감 있게 표현했다.

‘테이아’의 단장 ‘박정우’역은 배인혁은 언제나 원칙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젊은 끈대’이자, 고시 준비 마저 뒤로한 채 해체 위기의 응원 단장을 맡은 순수 낭만꾼의 모습을 오가며 팔색조 매력을 뽐냈다.

극중 현실과 낭만의 경계를 오가며 로맨스를 쌓아갈 한지현과 배인혁은 리딩 현장에서 티키타카 케미를 선보이며 두 사람이 만들어 낼 청춘물에 기대감을 끌어올렸다.